

齒科醫療管理學概論—II—

大韓齒科醫療管理學會長

崔 在 京

V. 病院管理와 齒科醫療管理

醫療體系의 觀點에서 보려는 病院의 位置는 醫院과는 差異가 있으며 그 機能으로도 醫院과는 大端히 다르다. 人的 物的 構成도 크고 하나의 組織體로서 取扱하기 위한 問題는 벌써부터 있었다. 美國에서는 1935년에 Mceeachern에 依하여 “Hospital organization and management”라는 크다란 著書가 나왔고 以後 病院管理에 對한 一定한 訓練을 생각하질끔 되었다.

現在 美國 醫科大學에는 1個年 程度의 大學院課程에서 몇 個의 講座가 있고 英國에서는 1954년에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college 등이 만들어졌다.

日本에는 1949年 厚生省 病院管理 研修所가 만들어져 講習을 하고 있으며 醫學教育中에는 1953年 東北大 醫學部에 病院管理學 講座를 두었고 其他 10位의 大學에는 講座로 두고 있지 않으나 講義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4年 日本病院管理學會가 發足했으나 여기서 取扱하는 것은 큰 組織體로서의 病院管理에 對한 問題이다. 齒科醫療가 實際로 行하여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企業體로서 생각하는 경우 所謂 零細企業에 屬하는 것이며 病院管理 問題와는 質的으로 差異가 있다. 이 點에서 齒科醫療管理는 別途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齒科醫療管理로서 取扱되는 問題의 特質로서 생각하려는 病院의 性格을 머리에 그리며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i) 規模가 極히 적다.

ii) 管理者인 齒科醫師의 主觀과 생각이 壓倒的으로 支配한다.

iii) 分業化를 하기가 어렵다.

iiii) 手工業的이다.

따라서 齒科醫療管理로서 이와같은 齒科醫業의 性質을 把握하고 그 合理化의 方法과 原則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I. 齒科醫療管理가 걸어 온 발자취

齒科醫療管理란 말을 使用하기 始作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나 齒科醫療를 해가기 위하여 必要한 具體的인 問題는 오래 前부터 取扱된 것 같다.

齒科醫療管理라는 것은 齒科醫療를 둘러싸고 있는 經濟的 條件이 強하게 左右되므로 이와같은 要素를 생각할 必要가 없었을 時期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外國의 齒科界(특히 美國) 事情과의 關係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分野의 變遷을 더듬어 보았으면 한다.

美國에서는 벌써 1930年 F.W. Tayler가 “Shop management”(工場管理論)이라는 著書를 내서 所謂 새로운 管理技術의 뿌리가 내려지는 메이므로 이같은 일이 齒科醫療를 行하는데 多少 影響을 주었다고 推定되나 明確한 事實은 잡을 수가 없다. 이때 頃 C.M. Johnson에 依하여 “Success in Dental practice”라는 冊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美國에서는 齒科醫療의 合理化에 對한 注目を 認定할 수가 있다. 이 冊의 目次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醫院의 整頓
- 2 患者吸收策
- 3 位置의 選定
- 4 知己를 넓일것
- 5 患者의 取扱法
- 6 書類의 記入과 簿記
- 7 約束과 治療時間
- 8 料金の 信用貸 同組立法 諸拂의 支出
- 9 治療 料金
- 10 助手의 使用法
- 11 購買上의 經濟消費의 節約

12 銀行의 預金 投資

13 同業者와의 交際

또 Dental cosmos誌에 Dental economics라는欄이 만들어진 것도 1900年代이다.

日本에서 1914年~15년에 걸쳐서 Johnspn의 "Success in Dental Practice"가 [開業成功策]이라譯本이 나온 것도 意味가 있다. 1916년에 George W Clapp라는 사람의 "Practical Practice"라는 400頁에 걸친 冊이 齒科學報誌上에 紹介되었다고 한다. 이때 日本의 齒科界에 電氣引擎이 普及되어 Dental Unit가 "Lover Saving apparatus" [勞力節約裝置]라고 市場에 出現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22年 처음으로 齒科敎育 機關이 생겨서 齒科醫學專門學校 出身이 나오게 되어 여러가지 뜻에서 齒科界에 새로운 出發이 始作했다.

이때 齒科醫療를 둘러싼 美國에 狀況은 第1로 1927年 筋肉勞動者를 對象하는 健康保險이 實施되고 한편 1925年頃에서 始作한 不景氣에 물결에 휩쓸리어 모든 面에 合理化라는 말이 注目되게 되었다. 벌써 科學的 經營管理에 對하여 F.W. Taylor(1856~1915)가 처음으로 冊이 나온것이 1903년에 일 이었으며, 有名한 "Principis Scientilic management"(科學的 管理의 原理)가 나온 것이 1911년의 일 이었으며 日譯이 벌써 1913年 "學理的事業管理法"이라 題하여 나왔으나 이는 그리 日本 世人에 注目を 받지 못하고 말았다. 美國에서는 이때를 前後해서 새로운 形態의 Dental economics의 風潮가 이러나 形成되고 있었으며 齒科技工의 處理에 對하여 齒科技工士나 技工所의 利用에 對하여 論說 등이 많이 齒科雜誌에 나왔으며 齒科醫療報酬의 決定의 基準等에 對하여 實勞動時間에서 1時間當의 移動單價를 내는 方法等이 詳細하게 紹介되었다.

1930년에는 Ritter齒科工業會社에서 "A.B. William. Suter에 依하여 "Dentistry A Profesion and A Bussiness"라는 400頁의 冊이 나왔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個個 齒科醫의 成功에 影響을 주는 重要한 2,3因子
2. 齒科醫院의 開設
3. 齒科醫院의 位置選定法
4. 近代의인 醫院을 위한 各室 及 設備의 整備
5. 裝飾과 補助의인 設備
6. 美國齒科醫師會의 倫理規定
7. 倫理的 公共性
8. 專門的 及 社會的 生活
9. 齒科營業의 經營面

10. 協同하는 齒科醫師

11. 共濟制度

12. 齒科衛生士와 看護員

13. 科學的인 齒科醫術의 患者에 應用

14. 小兒患者

15. 齒科醫療의 審美的 要素와 保健要素에 對하여 患者에 認識을 주기 위한說明圖

16. 齒科醫師의 肉體의 精神의 健康

거의 오늘날 齒科醫療管理에서 取扱하는 內容에 各樣 形態가 整理된 것을 볼 수 있다.

1945年 太平洋戰爭 終戰에 따라 우리社會는 새로운 出發을 하였다. 大端히 興味있는 것은 日本의 影響에서 美國의 強한 影響 밑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5年은 어떤 일을 記述하든 하나의 큰 轉期라 할 수 있다.

또 6.25動亂, 5.16革命 等の 混亂을 거처서 새로운 움직임이 始作했다. 稅制의 現實化로 申告納稅制가 採擇되어 齒科醫療中에 對稅考慮는 차츰 무거운 比重을 가져오고 1963年 「醫療保險法」이 公布되므로 法的 根據가 마련되므로 大齒에 醫療保險研究 委員會가 생겼다. 齒科營業中 앞으로 社會保險, 醫療報酬가 占하는 比重이 커지며 이와같이 稅와 社會保險醫療를 따라서 齒科醫療의 合理化를 생각해야 할 時期에 當面하고 있는 것이다.

1952년에 英國에서 S.L. Brumond-Jack son의 "Dental practice management"라는 著書가 出版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 | |
|-----------------|----------------|
| 1. 勤務 | 2. 共同 經營 |
| 3. 醫院의 購入 | 4. 醫院의 設計 |
| 5. 所得稅 必要經費와 保險 | 6. 診療의 豫約 |
| 7. 患者에 주는 판후렛 | 8. 治療費와 그 算定 |
| 9. 診療記錄 | 10. 事務記錄 |
| 11. 簿記 | 12. 精算과 料金請求 |
| 13. 醫療經營의 마음가짐 | 14. Recall制 |
| 15. Setting | 16. 補助員 助手의 養成 |
| 17. 技工室의 管理 | 18. 小兒의 取扱 |
| 19. 職員 | |

이때 美國에서도 齒科醫療管理에 對한 著書의 例를 들면

W.R. Mann & K.A. Eeaslick
"Practice Administration for the dentist" 1955

이 冊은 Michigan大學의 敎授인 2名이 1953年 10月에 Michigan大學에 行한 大規模로 齒科醫療管理에 對하여 work shop의 內容을 編集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

어 이때의發言과 이에 對한 討論을 거둬 項目마다 그 內容에 對하여 一問一答式의 解説을 부친것을 그 當時 美國의 齒科界의 醫療管理에 對한 것을 아는데 適切한 것이라 하겠다.

內容의 主된 것을 추려보면

- 第1章 齒科醫師의 倫理와 社會的 責任
 - 第2章 齒科醫療를 推進하기 위한 問題點과 調查方法
 - 第3章 齒科醫院新設
 - 第4章 齒科診療 補助員
 - 第5章 齒科醫院과 齒科醫療報酬
 - 第6章 會計와 日常의 事務의 業務
 - 第7章 齒科診療報酬의 支拂方法
 - 第8章 患者의 教育
- 上記와 같이 內容이 充實한 冊이다.

C. E. Rutledge & E. H. Winsor
The Dental Business Office 1956

이 冊은 主로 齒科醫療의 Business의 問題를 어떻게 하면 잘 된 것인가를 中心으로 記述한 150頁의 冊이다. 目次는 다음과 같다.

- 第1章 人生觀과 職業
- 第2章 財政的인 整備
- 第3章 信用貸出方策
- 第4章 簿記
- 第5章 事務機能과 施設
- 第6章 Recall
- 第7章 購買法
- 第8章 人事對策
- 第9章 書類整理
- 第10章 集團
- 第11章 集團의 構成
- 第12章 事務處理
- 第13章 建設
- 第14章 終

著者도 記述하듯이 圖示나 그림과 質도 없는 冊이나 思考方法을 쓴 것으로 內容이 精粗하여 統一되어 있지 않는 點이 있으나 많이 愛讀되고 있다.

R. K. Stinaff "Dental Practice Administration" 1960

齒科醫學教育中에서 齒科醫療管理의 取扱 方法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教科書로 쓰여진 것으로 270頁 程度이며 곧 第2版이 나온다니 美國에서 많이 使用된다고 생각한다.

- 第1章 齒科醫療管理의 意又
- 第2章 開業形態의 選擇
- 第3章 開業의 目標
- 第4章 醫院의 設計
- 第5章 醫院의 設備과 資金
- 第6章 必要한 道具
- 第7章 自己를 알릴것
- 第8章 補助員
- 第9章 約束制의 勸誘法
- 第10章 患者의 取扱法
- 第11章 診療報酬, 支拂方法等
- 第12章 說明과 動機
- 第13章 通信法
- 第14章 患者로 잃는 것과 얻는 것
- 第15章 新人의 教育
- 第16章 醫院이나 個人에 事務의事項
- 第17章 教育을 繼續하는 일과 親知를 만드는 일
- 第18章 臨床과 思考의 發展
- 第19章 倫理와 醫事關係의 法規
- 第20章 事故에 直面하여
- 第21章 이모 저모

이와같은 著書와 같이 Turbin-engine의 普及 削除 技術의 變化等 새로운 器械 導入이 活潑해지기 始作했다.

이와같은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1963年 7月 大韓齒科 醫療管理學會가 發足を 보게 되었으며 그때 目的은 “醫學과 社會科學을 包含한 現代生活科學을 利用하여 높은 水準의 齒學을 넓은 階層에 미치도록 하는 方策을 科學的으로 研究하고 齒科醫療 擔當者의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實際로 齒科醫料管理를 科學的으로 研究하는 사람이 없는 狀態이고 그 活動은 아직 啓蒙的活動 分野로 限定됐다. 앞으로 어느 곳이든 齒科醫療管理에 定着하기 위한 役割, 美國에서 導入된 새로운 概念을 어떻게 消化하는가에 두고 있으며 이것으로 旺盛한 海外交流 新器械나 材料 導入 그 위에 社會保險 醫療制度의 實施, 其他 稅 補助員 새로운 器具나 設計等등의 問題가 中心이 될 것이다. 于先 齒科醫育機關에서의 齒科醫療管理學 教育으로 管理의 思想을 넣어야 하겠고 또 後 教育 中心에 Study club이나 有志에 依한 相互研究等으로 充實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차츰 社會全體가 組織化되고 所謂 修正資本主義體제가 整理되어 가는데 있어서 齒科醫療와 같은 特異한 形態에 것을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나에 따라 問題의 發展과 깊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次號 齒科醫療를 左右하는 條件>